

협회 2010년 정기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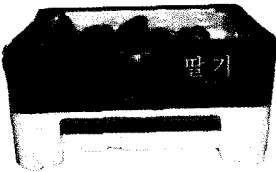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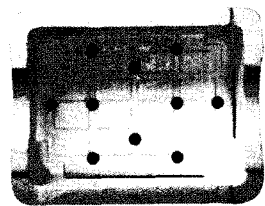


협회는 3월 4일(목) 오장수(LG화학 부사장) 회장과 협회 임직원, 이사진과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가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2009년 협회 활동결과 보고와 함께 2010년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금년도 사업계획안에는 스티로폴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스티로폴 재활용 목표 73% 달성, 공제조합 운영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추진사업으로는 스티로폴 재활용 우수지자체 및 유공자 시상, 해외 EPS 수산물상자 재활용 실태 현지견학, 효율적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인형, 완구, 종합제품 EPS포장재 사용규제 해제 건의, 재활용비용상징 연구사업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과일상자 개발

제조사: 한산케미칼(주) 충남 서천군 화양면 화촌리 230 (041-951-2066)



과일의 신선도를 높여주고 알박기를 예방할 수 있는 스티로폴 포장재가 개발되어 과일용 스티로폴 포장재의 생산과 사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스티로폴 포장재 전문 생산업체인 한산케미칼(주)(이성규 대표)이 새로이 개발한 스티로폴 재질 농산물 포장상자는 상자의 4개 측면 모두에 1차형 구멍과 아래 면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은 디자인으로 과일 내부의 열과 가스 발산이 증대되어 신선도와 보관기간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육안 확인이 용이하여 알박기를 예방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종래의 과일상자는 과일 내부의 열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등의 가스로 쉽게 부패되어 신선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있어 소비자, 유통업계, 생산자 등으로부터 꾸준히 개선점을 요구받아왔다.

한산케미칼(주)이 새로이 개발한 스티로폴 상자는 내충격성 및 단열성이 뛰어나 연약한 육질로 쉽게 무르기 쉬운 딸기와 내부 열이 많이 분출되는 토마토, 포도 포장재로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압축 골판지 가격의 55%~45%, PET상자의 80%~60%로 단위 포장비가 저렴하며, 운반용 골판지 상자를 별도로 재포장해야할 필요가 없어 포장재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골판지상자나 PET상자는 포장작업이 복잡하고 운반을 위해 2차 포장이 필요하나 새로이 개발한 스티로폴 상자는 운반용 2차 포장 용기 겸용이 가능하여 포장 및 상차 작업이 쉽도록 고안되었으며, 재활용 가능 분리배출수거 대상 품목이므로 상자 재활용(2009년도 재활용률 72%)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딸기, 포도, 토마토 등의 포장에 적합한 스티로폴 포장재는 현재 이마트에서 딸기 포장상자로 채택 사용 중이며, 롯데마트에서 방울토마토 포장상자로 채택하는 등 대량 수요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산케미칼은 2010년도 실용신안 특허등록(제20-447770호)을 받은 스티로폴 상자를 모든 스티로폴 포장상자 제조업체에게 최소한의 분담금으로 사용권을 허용하기로 함으로써 새로이 개발한 스티로폴 농산물 상자의 사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형 가전제품 스티로폼 완충포장재 사용규제 해제

지난 2003년부터 실시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에 의해 2008년 이후 40,000㎤ 이하의 소형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되어 왔던 스티로폼 완충포장재의 사용규제가 해제되었다.

그간 EPS 완충포장재 사용 규제로 인해 사용되던 지류, EPP, EPE 등의 대체 포장재의 사용량은 2010년 기준 4,920톤으로 추정되며, 이 물량이 EPS 포장으로 사용 변경 될 경우 포장재 원가 절감 244억 원, 제품의 파손을 감소 22억 원, 재생 중간원료 증대에 따른 수익이 19억 원, 작업공정 향상 2억 원, 물류비용절감 44백만 원 등 총 경제적 효과가 2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지난 연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958호)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355호)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소형 가전제품 EPS재질 완충포장재에 대한 사용 규제를 해제하였다. EPS는 2%의 범용성합성수지 원료에 98%의 공기가 들어 있는 제품으로 가볍고, 외부로부터의 충격방지 기능이 탁월할 뿐 아니라 방수성, 성형성 등이 양호하여 다양한 제품의 포장재로 널리 쓰여 왔으나 그간 정부의 폐기를 발생억제 정책으로 인해 사용이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업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2009년 스티로폼 포장재의 재활용율은 71.2%를 기록하였고 그림액자, 건축용자재 등 스티로폼재활용 제품의 해외 수출도 600억 원을 넘는 등 스티로폼 재활용 시장은 점점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또한 스티로폼의 재활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도입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 더 이상 규제의 의의가 없어서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사용규제를 해제하게 되었다. 단, 사용이 확대된 소형가전제품 EPS완충포장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해당품목일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지게 된다.

협회 출입 전문지 기자 간담회 개최

그간 협회의 활동사항과 스티로폼 재활용 관련 보도에 적극적이었던 환경, 식품, 플라스틱, 화학, 포장관련 전문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금년 6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협회 출입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회 최주섭 부회장은 스티로폼 과일상자 개발 관련 보도자료와 해외 수산물 포장재 사용 및 재활용 기술 견학 결과자료 등을 전달하여 전문 언론에도 적극 보도되도록 하였다.



EPR 10주년 기념 행사 및 환경의날 행사 참석

환경부가 금년 5월 27일, 28일 양일에 걸쳐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10주년 기념 행사에 당협회 회장과 임직원, 공제조합 회원사, 재활용 사업자 등이 참석하였다. 아울러 환경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2010년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국민 홍보 사업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또한 협회는 6월 4일 수도권 매표지관리공사에서 환경부 주최로 열린 환경의 날 행사에도 참석하였다.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진영준 전무가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